

농식품부, 동물용의약품 중남미 시장 개척 위해 칠레·멕시코에 시장개척단 파견

- 한국동물약품협회 및 제조업체로 구성된 시장개척단 파견, 정부기관·유통업체 방문, 현지 바이어와 1:1 수출 상담 등 신시장 개척 적극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7월 12일부터 21일까지 한국동물약품협회 및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칠레와 멕시코에 파견하여 한국 동물용의약품을 홍보하고 중남미 시장 개척에 나선다.

* 참가 기업(4개사) : 녹십자수의약품(주), (주)대성미생물연구소, (주)메디안디노스틱, 우진비엔지(주)

농식품부는 한국의 동물용의약품 수출기업에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현지 정부기관 방문, 수출상담회 및 시장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작년에는 아프리카 르완다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수출상담회 상담 73건, 상담액 5.7백만불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칠레·멕시코는 중남미 지역에서 축산업 기반과 위생·검역 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춰진 국가로 안정적인 동물용의약품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항생제, 백신 등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수입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유망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 ('24년 기준) 칠레 동물용의약품 시장 규모 2억 2천만 달러, '34년까지 연평균 8.5% 성장 예상
멕시코 동물용의약품 시장 규모 16억 5천만 달러 추정, '30년까지 연평균 8.4% 성장 예상

7월 15일과 17일에는 칠레와 멕시코에서 현지 유망 구매업체(바이어) 28개사와 우리 기업을 일대일 매칭하여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상담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참가기업 대상으로 칠레, 멕시코 시장 동향과 해외 바이어 상담 전략, 수출 성공 사례 등을 사전 교육하였다. 또한, 초청 바이어 대상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여 바이어의 관심사, 요구사항 및 구매 의향을 사전 분석하여 참가기업에 공유하는 등 꼼꼼히 준비하였다.

7월 14일, 18일에는 칠레 및 멕시코 인허가 관련 정부기관을 방문하여 동물용의약품 등록 절차, 축산 정책 현황 등을 파악하고, 현지 바이어가 운영하는 유통업체를 방문하여 유통구조, 주요 수입경로 및 국내제품 수요 확인 등 시장조사를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시장개척단 파견을 계기로, 중남미 지역에 새로운 수출 교두보를 마련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현지 정부 및 기업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수출 관련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고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시장 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 동물용의약품 수출은 최근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5년 5월말 기준 한국 동물용의약품 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51.0% 증가한 167.2백만불을 기록하였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중남미 지역에 한국 동물용의약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정보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수출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농식품혁신정책관실 농산업수출진흥과	책임자	과 장	서정호 (044-201-2471)
		담당자	사무관	박현석 (044-201-2475)